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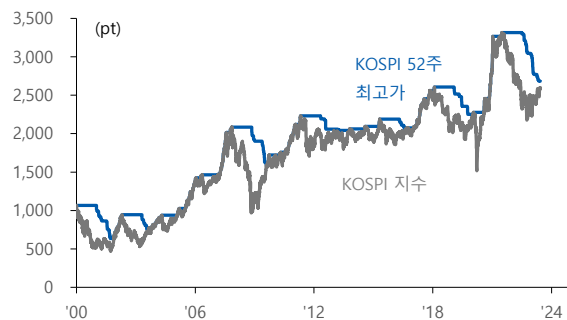


KOSPI 2600과 낙관론

1. KOSPI 2,600pt 돌파

- 지난주 KOSPI가 2,601.4pt에 마감.
2022년 6월 9일 이후 거의 1년 만에
2,600pt를 상회
- 기간조정으로 인해 52주 신고가
하향조정 지속. 조만간 52주 신고가 경신
가능성 유력
- 과거 기간조정과 반등이 만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 초기 차익실현
발생하더라도 결국 긍정적 방향성을
보였던 경향

2,600pt를 넘어서며 조만간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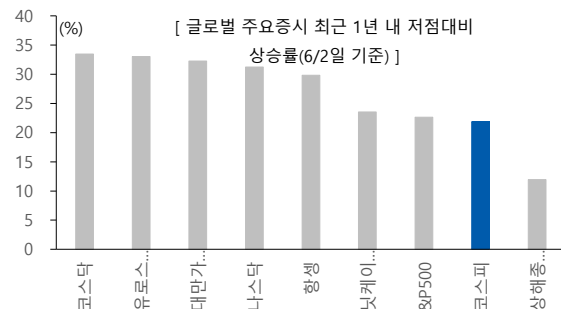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강세장에 진입

- 2,600pt 상회로 종가기준 저점대비
20%라는 강세장 진입 허들도 통과.
코스닥이나 글로벌 주요증시와 비교하면
초입 수준
- 시계열 측면에서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강세장 진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판단
- 이러한 주가 강세에 비해 투자심리는
아직 낙관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
즉 차익실현 발생하더라도 낙폭
제한적일 환경일 가능성

글로벌 주요증시의 최근 1년 내 저점대비 상승률:
코스피도 강세장 초입에 도달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2,600pt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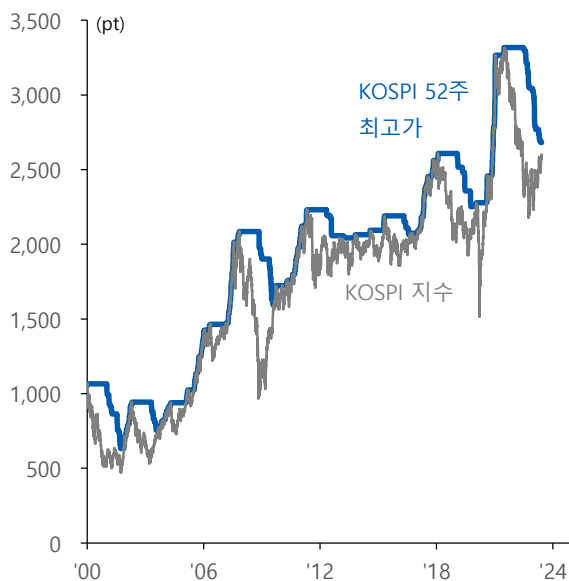
지난주 KOSPI가 2,600pt를 상회한 2,601.4pt에 마감했다. 2022년 6월 9일 이후 거의 1년 만의 일이다. 연초 이후 온갖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은 KOSPI가 월간으로 -13%라는 기록적인 낙폭을 세웠던 때다. 즉 증시가 여기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조만간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국면처럼 과거에도 기간조정(52주 신고가의 하향 조정)과 가격 반등이 만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이번을 제외하고 크게 6회 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앞선 국면들의 통계적 특징은 초기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 차익실현 등으로 인한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차트1] 2,600pt를 넘어서며 조만간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KOSPI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과거 기간조정과 가격 반등이 만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국면들, 방향성은 긍정적

52주 신고가 경신	수익률(%)					다음 고점일	소요 개월
	+1M	+2M	+3M	+6M	+12M		
'01.11	7.8	14.9	26.1	40.5	10.7	'02.4	5
'03.8	-5.3	3.3	2.1	16.3	4.4	'04.4	8
'09.8	2.7	3.6	-1.2	0.1	9.7	'11.4	20
'13.10	-1.7	-3.8	-4.3	-2.4	-5.6	'15.4	18
'16.9	-0.1	-4.1	-3.7	0.7	12.3	'18.1	16
'20.7	3.8	2.7	0.0	31.3	41.3	'21.6	11
평균	1.2	2.8	3.2	14.4	12.1		13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2. 강세장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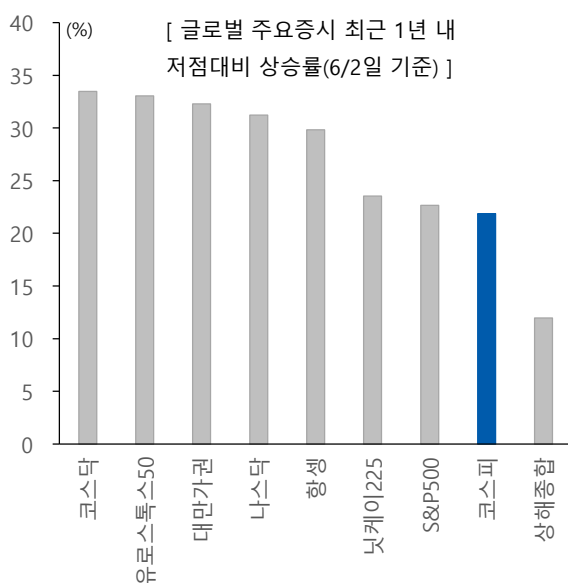
KOSPI 2,600pt라는 가격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세장 진입에 대한 것이다. 지난 9월말 종가기준 저점인 2,155.5pt 대비 6/2일 +20.7% 상승했다. 처음으로 종가기준 저점대비 +20%라는 소위 강세장의 기준을 만족시켰다.

장중 저점을 포함한 52주 최저가 대비로는 약 +22% 강세다. 2차전지 중심으로 4월까지 초강세를 보였던 KOSDAQ 지수나 다른 글로벌 주요증시들과 비교하면 이제 막 시작한 편이다.

시계열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저점대비 20%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미약하게 끝나버렸던 2017년말~2018년초와 같은 국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때와 달리 현재는 이익의 peak out이 아닌 bottom out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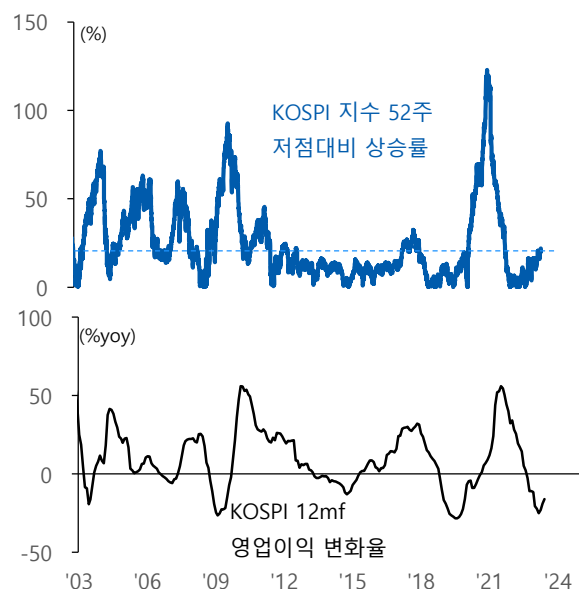
국내증시의 향후 이익전망에 점차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결국 주가지수의 강세장 진입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3] 글로벌 주요증시의 최근 1년 내 저점대비 상승률:
코스피도 강세장 초입에 도달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강세장 진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익의 턴어라운드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투자심리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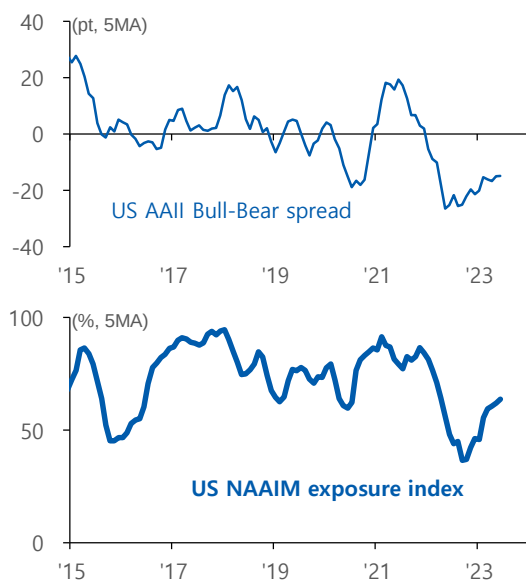
위와 같은 52주 신고가 돌파 유력 가능성이나 강세장 진입 초기 상황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결국 가격 자체에 대한 부담이다.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것 중 하나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장(Bull)보다는 약세장(Bear)에 대한 예상이 우세하다.

미국 액티브 펀드매니저들의 증시 노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선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낙관 편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한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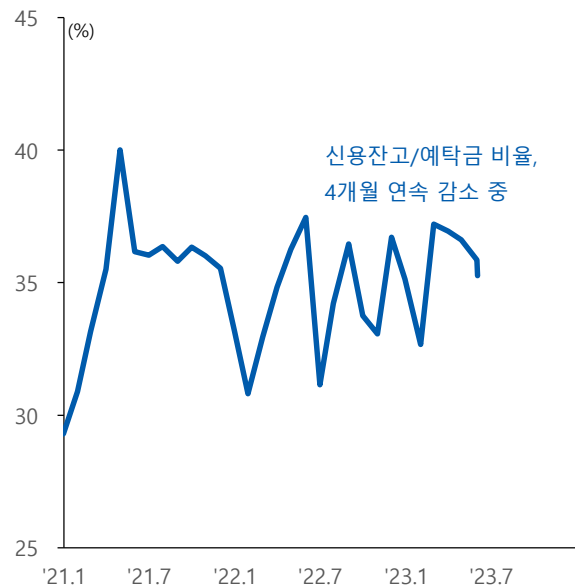
국내증시에서는 예탁금과 신용잔고를 통해 투자심리를 엿볼 수 있다. CFD 이슈 이후 신용잔고는 늘지 않는 반면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차익실현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차트5] 미국 개인투자자와 액티브 매니저들의 투자심리는 개선, 그러나 아직 낙관편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



자료: Bloomberg, NAAI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국내증시 고객예탁금은 회복된 반면, 신용융자잔고는 CFD 이슈로 급감 후 회복되지 못한 상황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